

한국판 부모용 초등학생 사회 기술 평정척도(K-SSRS-P)의 타당화*

문 성 원[†]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Gresham과 Elliot(1990)의 Social Skill Rating System(SSRS)중 부모평정형(SSRS-P)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에게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우리말로 번안한 초등학생용 사회 기술 평정 척도(K-SSRS-P)설문지를 학부모 892명에게 실시하고 여기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공존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K-SSRS-P:초등학생용은 원 척도인 SSRS와 유사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며,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척도는 K-CBCL의 문제행동 척도와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7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척도에서 얻어진 25문항 4요인 구조와 문제행동척도에서 얻어진 17문항 3요인 구조가 원척도인 SSRS의 요인구조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K-SSRS-P:초등학생용의 요인들 중 주장성 요인이 문제행동에 대해서 갖는 관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문화 특유의 사회성 발달 양상과 개입에 대한 시사점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사회기술, 신뢰도, 타당도, 요인분석, 개입, 이동, 부모평정

* 이 연구는 미국 Pearson출판사의 공식적 승인하에 진행됨.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문성원 /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Tel : 063-290-1377 / E-mail : drswmoon@hanmail.net

사회적 행동은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돋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임효진, 2012). 친사회적 행동은 스트레스의 결과가 정신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 요인의 역할을 하며(Meyer & Mueser, 2011), 사회적 자산은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적응유연성을 부여하고(Caughy 등, 2012), 아동의 학업성적을 예측해준다(Wentzel, 1993). 아동의 사회기술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하며, 그것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습득하는 등 개인의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김용석, 흥지영, 2007). 따라서, 사회 기술의 결핍은 아동이 경험하는 즉각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또래관계 내에서의 장기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Kiley-Brabeck & Sabin, 2006). The Sea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SSDP)를 보면 6년간 사회 정서적 기술 훈련을 받은 초등학생들은 20세가 넘어서도 학교, 직장, 정서적 건강 및 정신건강 측면에서 다른 조건 아동들보다 유의미한 정도로 더 높은 기능 수준을 보였고, 범죄나 약물 남용과 관련해서는 훨씬 빈도가 낮았다(Hawkins 등, 2005). 이처럼, 사회적 영역에 대한 개입은 오랜 시간에 걸쳐 뚜렷하고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므로, 발달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시스템에 들어가게 된 아동에게도 사회적 기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측면들을 결정한다. 학교 규칙이나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 선생님과 의사소통하는 것, 다른 아동을 도와주는 것, 또래로부터의 압력에 반응하는 것, 놀림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 갈등상황에서도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모두 아

동의 학교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술들이다(Gresham & Elliot, 1990). 이 시기를 통해서 아동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강력한 정체감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친구와 동성 친구 집단들을 발견한다(Lawson, 2003). 아동의 학교 적응에서 사회적 기술은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 이에 대해서 정부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미리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실행 여부에 대해 강력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은 외국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교육부, 2012)의 전국적 실시를 통해 학업 이외의 부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개입을 목적으로 한 공식적 확인 작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지만, 학업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개입과 관련된 공식적 접근을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뿐이다. 즉,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의 시행은 아동의 사회 정서적 능력을 체계적으로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아직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사회 정서적 영역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도 해당 영역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가장 우선시되어야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극히 드물다. 다수의 기존 사회적 기술 척도나 사회적 유능성 척도들이,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개념적 혼돈을 빈번히 드러내고 있고, 진단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입에 대한 응용적 가능성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문성원, 2002). 평가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정교한 개입 계획을 개발하고 싶어

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해줄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술과 관련되어, Matson, Rotatory, Helsel(1983)의 MESSY(The Matson Evaluation of Social Skills with Youngsters), Reynold와 Kamphaus(2004)의 BASC-2(Behavioral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II)이 소개된 바가 있다. 그러나, MESSY의 경우는 사회적 기술을 단지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의 두 범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인데다가, 많은 연구자들이 박난숙(1992)이 번안한 한국판 MESSY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판 MESSY에 대한 타당도를 다룬 논문은 없는 상태에서 한국판 MESSY가 통용되고 있다. 또한, BASC-2에서는 사회적 기술이 하나의 하위 척도에 불과하다. CS4-K(김용석, 홍지영, 2007)는 사회 규범, 호감, 사회적 미숙이 최선의 필수 사회적 기술인가 하는 점에서 취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Gresham과 Elliot(1990)의 SSRS(Social Skill Rating System)은 여러 구체적인 사회적 기술들을 하위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실무나 연구 모두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기능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척도이기 때문에 개입과의 연결성이 뛰어나다. 기존의 사회적 기술 평가도 구중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Demary 등, 1995). 아동이 반드시 학습해야하는 긍정적 행동과 반드시 개입을 통해 제거해야하는 부정적 행동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도 SSRS의 중요한 장점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자하는 경우 SSRS의 중다 평정 시스템은 더욱 유용하다. 초등학교 아동들의 경우 자기보고에 의한 평정을 어려워할 수 있고, 특히 저

학년 아동의 경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보고식 평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 만12세 미만의 아동이 성인의 보호 없이 특정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일 정도로, 아동은 청소년들과는 달리 항상 부모의 돌봄과 보호를 절대적으로 요한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매일 학교에서 집으로 가져오는 ‘알립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모가 그 내용을 확인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그 어떤 발달 시기보다도 초등학교에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 교사간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아동에 대한 평가 또한 이러한 협력체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이 학교에서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대개 이에 관해 삼자의 견해를 모두 다루게 되며, 따라서 이들 간의 견해 차이는 더 큰 문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볼 때, SSRS는 처음부터 중다평정자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자 협력관계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다.

SSRS가 이처럼 사회적 기술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뛰어난 여러 장점과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자들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했었으나, 적절한 타당화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였는가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SSRS의 우리말 문항을 구하는데 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SSRS를 사용한 논문들을 보면, 국내의 특정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였으면 해당 논문이 SSRS에 대한 타당화의 증거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연구자들은 그

논문의 존재 자체가 타당화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누군가가 특정 척도를 사용해서 그 연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그 특정 척도의 타당화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에 대한 가장 뚜렷한 예로,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SSRS Student Form (SSRS-S) Elementary Level를 한국으로 번역한 한국판 초등학생용 SSRS-S에 대한 타당화 연구(문성원, 2013)를 보면, K-SSRS-S:초등학생용의 요인구조는 SSRS-S: Elementary Level과 상당히 유사했으나, SSRS-S: Elementary Level에 비해 우리나라 아동의 자료를 더 잘 설명했다. 사회기술이라는 것은 그 기술이 사용되는 문화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외국 척도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외국 척도가 국내에서도 외국에서와 같은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섬세한 타당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절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K-SSRS-S:초등학생용에 대한 타당화 작업에 이어, SSRS Parent Form(SSRS-P), Elementary Level을 번안하여 얻어낸 K-SSRS-P:초등학생용의 타당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같은 초등학생용이라고 하더라도 SSRS-S와 SSRS-P는 일부 요인에서는 상이하고 일부 요인에서는 서로 공통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교는 아동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SSRS-P:초등학생용의 타당화를 위해 두 차례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K-SSRS-P:초등학생용을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보호자들에게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미국아동들에게서 확인된 SSRS-P: Elementary Level의 요인구

조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 아동들의 자료가 얼마나 잘 설명되는가보다는, 과연 우리나라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들은 어떠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탐색해보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 1에서는 이어서, K-SSRS-P:초등학생용의 공존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위해 K-SSRS-P:초등학생용과 K-CBCL(오경자 등, 1997)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Gresham과 Elliot(1990)은 SSRS-P의 공존타당도를 검증을 위해서 SSRS-P Elementary Level과 Achenbach와 Edelbrock(1987)의 Checklist Behavior Checklist-Parent Report Form(CBCL)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Gresham과 Elliot에 따르면, SSRS-P Elementary Level의 문제 행동 척도는 CBCL에서 그에 상응하는 척도와 .70의 상관을 맺고 있었고, SSRS-P Elementary Level의 사회기술 척도는 CBCL의 사회적 유능성 척도와 .58의 상관을 맺고 있었다.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얻어진 결과와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얻어진 결과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연구 1에서는 SSRS-P Elementary Level의 표준화과정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연구 2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얻은 요인 구조 및 문항들이 또 다른 표본을 사용한 교차타당화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AMOS 21.0의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1. K-SSRS-P:초등학생용의 요인 구조 및 공존타당도

방 법

대상

서울 및 전북 지역의 5개 초등학교 34개 학급(3학년 3개 학급, 4학년 11개 학급, 5학년 11개 학급, 6학년 9개 학급)에 속하는 학생들의 학부형 892명(여학생 학부모 448명, 남학생 학부모 422명)에게 초등학생용 K-SSRS-P를 실시하였다. 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은 11.61세($SD = .98$)이었다. 아동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159명의 자료가 확인 가능하였고, 136명이 아동의 엄마, 21명이 아동의 아빠, 1명이 아동의 할머니, 1명이 아이의 보호자라고 답했다. 보호자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해 아동과의 관계가 표기되는 부분을 삭제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모든 학교에 관하여 확인가능하지는 않았다. 전체 대상 학교 중 2개 학교는 K-SSRS-P와 K-CBCL 모두를 포함한 설문지를 받았고, 해당 학교 소속의 373명의 아동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도구

한국판 초등학생용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부모용(K-SSRS-P:초등학생용)

Gresham & Elliot(1990)의 SSRS는 미취학아동용,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학교기반 평가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SSRS의 이러한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초등학생용 SSRS를 타당화하고자 하였으며, 초등학생용에 대한 학생평정형, 교사평정형, 부모평정형 중에서 특히 부모평정형(Parent Form, SSRS-P)을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SSRS-P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이 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초등학생

용 SSRS-P는 크게 2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38개의 문항은 협동성, 주장성, 책임성, 자기조절의 4요인으로 이루어진 사회기술 영역을 평가하며, 17개의 문항은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과잉행동의 3요인으로 이루어진 문제 행동 영역을 평가한다.

사회기술 영역에 대한 평가는 빈도 평정과 중요도 평정의 두 가지 평정을 하게 되어 있고, 문제행동 영역에 대한 평가는 빈도 평정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빈도 평정에서는, 문항에서 주어진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결코 하지 않는(0)’, ‘간혹 하는(1)’, ‘매우 자주 하는(2)’ 중 하나를 택하게 되며, 중요도 평정에서는 그 행동이 자신의 적응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0)’, ‘중요한(1)’, ‘결정적인(2)’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한국판 초등학생용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K-SSRS-P:초등학생용)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언어 국가에서 초등교육부터 학부 과정까지 마친 이중언어자와 동시통역 학위 과정을 마친 전문 번역자 그리고 임상심리전문가이자 박사학위 소지자인 연구자가 SSRS-P:초등학생용의 원문항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해당 언어 국가에서 초등교육부터 박사 학위과정까지 마친 이중언어자가 번역한 문항들을 다시 검토하였고, 국내 학부과정의 이중언어자가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들을 다시 영어로 역번역하였으며, 영어로 된 원 문항과 한글에서 영어로 역번역된 문항들 간의 일치성 정도에 대해서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5점 척도에 평정을 하였다. 평균 3점 미만의 평정을 받는 문항은 없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초등학생용 K-SSRS-P 문항이 완성되었다.

한국판 아동용 문제 행동 척도(Korean Version of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K-CBCL(오경자 등, 1997)은 원래 Achenbach (1983, 1991)가 4-18세 정도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 행동 및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크게 사회 능력 척도와 문제 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119개의 문제 행동에 관한 항목으로 이루어진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는 위축 척도, 신체 증상 척도, 불안/우울 척도, 사회적 미성숙 척도, 사고의 문제 척도, 주의집중 문제 척도, 비행 척도, 공격성 척도, 내재화 문제 척도, 외현화 문제 척도, 총문제 행동 척도, 성문제 척도, 정서불안정 척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한국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회활동 척도는 제외되었다. 각 항목은 0점(전혀 없다), 1점(가끔 보이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2점(자주 있거나 심한 경우)의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K-CBCL 표준화 과정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alpha = .62 \sim .86$ 에 해당했다.

절차 및 분석 방법

아동 한 명당 학생용 설문지 1부와 부모용 설문지 1부가 각각 배부되는 방식으로, 서울 및 전북 지역의 5개 초등학교 34개 학급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용 설문지의 결과만을 다루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는 사회기술척도와 문제행동척도를 따로 구분하여 각기 별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측치가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사회기술척도에 대한 분석에는 791명, 문제행동척도에 대한 분석에는 85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K-SSRS-P:초등학생용에 대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을 구하여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문항과 상관이 낮게 나온 문항이 분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이용하여 공통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 구조 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분해법을, 변수의 공통분 추정방법으로는 재분해를 통한 반복 추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은 사각회전 방법 중 Direct Oblimin($\delta=0$)을 이용하였다.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K-SSRS-P:초등학생용의 최종 문항 확정을 위해서는 문항분석과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 결과를 모두 고려하였다.

K-SSRS-P:초등학생용의 공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K-SSRS-P:초등학생용과 K-CBCL에 대한 상관을 검토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 과정에는 SPSS 21.0을 이용하였다.

결과

신뢰도 및 요인 분석

분석에 앞서서 먼저 SSRS-P:elementary level을 구성하고 있는 총 55개의 문항들이 K-SSRS-P:초등학생용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보았다. 사회기술척도와 문제행동척도를 따로 구분해서 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한 문항과 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 총점과의 상관을 반영하는 r_{ct} , 전체 척도에서 한 문항이 제거되었을 경우의 α 계수

를 살펴보았다. λ_{it} 를 검토한 결과, 사회기술 영역($\lambda_{it}=.21 \sim .59$)과 문제행동 영역($\lambda_{it}=.27 \sim .66$) 모두 적정 범위의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SSRS-P: elementary level 문항 전체의 상관계수 행렬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자료의 구조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Bartlett의 구형 검사와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절성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Bartlett의 구형검사에서 사회기술 영역은 $X_{703} = 8003.59(p<.0001)$, 문제행동 영역은 $X_{136} = 4275.822(p<.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절성 검사 지수는 사회기술 영역이 .92, 문제행동 영역이 .91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요인 분석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George & Mallery, 2001).

요인의 수효에 대한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Kaiser's(1960) eigenvalue-greater-than-one rule, Horn's(1965) parallel analysis, Cattel'(1966) scree test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효에 대한 추정치를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요인수효를 고정시킨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고 요인 구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주축 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Direct Oblimin($\delta=0$)방식으로 사각 회전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요인수효에 대한 공통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SSRS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수의 수치가 .30 이상이 되는 것을 문항 선택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우 SSRS의 경우와는 달리 사각회전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문항 선택을 위해서는 구조계수와 형태계수를 모두 고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 요인에 문항의 숫자가 최소한 3개 이상이 되는 경우만 포함시켰다. 기존 SSRS의 요인 구조 또한 참고하였다.

먼저, 사회기술 영역의 경우, 요인의 수효에 대한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요인의 수효를 제한하지 않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니 Kaiser(1960) 방식에 의해 총 9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의 수를 엄격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도 총 9개의 요인이 추정되었다. 그러나 38개 문항에서 얻을 수 있는 요인의 수효로 9개는 경제성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스크리검사 결과를 고려하였다. 스크리검사 결과에서는 3번째 요인부터의 고유치의 차이 정도가 크지 않았으므로 Cattel(1966)의 기준에 의하면 요인의 수효를 2개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나 첫 번째 차이만큼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또 6번째 요인부터 고유치 차이가 줄어들었고, SSRS의 요인구조가 4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Kaiser rule과 PA 모두 9개 요인을 추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첫 번째 꺾은 점보다는 두 번째 꺾은 점이 요인수효 추정에 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보였다.

2개에서 9개에 이르는 수효로 고정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 3개, 4개로 요인 수효를 고정한 경우는 첫 번째 요인에 SSRS의 4요인이 모두 포함되는 등 개념적으로 뒤섞여있었을 뿐만 아니라 항목수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보였고, 9개, 8개, 7개, 6개로 요인수효를 고정한 경우는 한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수가 3개 미만인 경우가 많거나 혹은 총 38개 문항을 너무 세분화된 요인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서 한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수가 대체로 너무 적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요인구조는 5개 요인 구조로 판단되었는데, 요인을 5개로 정하는 경우 요인들 간의 내용 구분이 개념적으로 명확하고 SSRS-P: elementary level과도 일관되어 있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표 1¹⁾. 사각으로 회전된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영역에 대한 요인 형태(구조) 계수, 요인별 신뢰도 계수,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전체척도 $\alpha=.87$	SSRS 요인 ²⁾	형태(구조)계수				<i>M</i>	<i>SD</i>
		1	2	3	4		
요인 1							
$\alpha=.77$						1.21	.38
24	A	.69(.66)	.01(.12)	-.12(.14)	.05(.24)	1.10	.66
12	A	.65(.63)	-.06(.06)	.09(.25)	-.09(.14)	1.46	.57
30	A	.58(.61)	-.04(.15)	-.08(.19)	.14(.33)	1.11	.68
5	R	.52(.50)	.13(.22)	-.26(.02)	.10(.25)	.73	.64
4	A	.49(.54)	-.04(.13)	.02(.23)	.05(.26)	1.41	.61
7	R	.43(.47)	.04(.17)	.06(.23)	-.02(.21)	1.35	.62
10	A	.39(.40)	.08(.14)	.10(.21)	-.12(.10)	1.16	.53
23	A	.34(.46)	-.04(.19)	.08(.30)	.24(.40)	1.40	.55
요인 2							
$\alpha=.80$						1.03	.43
15	C	-.06(.09)	.77(.75)	-.04(.20)	.02(.30)	.98	.65
2	C	-.03(.08)	.75(.70)	-.09(.15)	.021(.26)	.90	.61
19	C	.10(.24)	.58(.64)	.10(.30)	-.13(.25)	1.04	.59
28	C	-.05(.16)	.56(.66)	.09(.35)	.21(.45)	1.05	.63
21	C	.15(.29)	.42(.52)	.04(.29)	.17(.39)	.97	.58
16	C	.17(.36)	.35(.54)	.19(.41)	-.02(.37)	1.23	.59
요인 3.							
$\alpha=.67$						1.53	.35
38	R	.08(.28)	.04(.24)	.55(.59)	.00(.28)	1.51	.53
37	R	.05(.28)	.07(.30)	.52(.60)	.05(.35)	1.63	.50
34	A	.07(.26)	-.09(.13)	.43(.50)	.20(.35)	1.37	.53
31	R	-.11(.09)	.08(.26)	.38(.42)	.06(.27)	1.73	.50
29	R	-.12(.12)	.20(.40)	.35(.46)	.15(.38)	1.42	.61
요인 4.							
$\alpha=.70$						1.05	.36
26	S	-.06(.20)	.08(.35)	.06(.34)	.59(.65)	1.07	.57
25	S	.14(.34)	.10(.35)	.02(.31)	.48(.59)	1.01	.58
22	S	.05(.25)	-.01(.22)	.19(.38)	.44(.51)	1.08	.56
33	C	-.06(.17)	.13(.36)	.15(.36)	.41(.53)	1.05	.63
14	S	-.08(.09)	.17(.32)	-.02(.18)	.40(.44)	1.02	.60
9	S	.21(.33)	.07(.25)	-.03(.21)	.31(.41)	1.09	.53

¹⁾ 미국 Pearson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K-SSRS-P의 구체적인 문항은 논문안에 포함시키지 않음.

²⁾ 원 척도에 속한 4개 요인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A: assertion, C: cooperation, R: responsibility, S: self-control

었다. 다만, 첫 번째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수가 2개에 불과하였고, 2개의 문항 모두 첫 번째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3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첫 번째 요인에 해당하는 2개의 문항은 배제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4개의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25개를 이용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를 25문항과 원래 SSRS-P: Elementary Level의 사회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38문항간의 상관은 .98($p<.0001$)로 나왔다.

표 1에는 791명의 학부형 자료를 통해서 얻은, 25문항으로 된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영역에 대한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 내적 합치도 계수, 사각으로 회전된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영역 요인들에 대한 형태계수와 구조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7이었고,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67~.80의 범위에 있었다. Gresham과 Elliot(1990)이 .65~.80의 내적 합치도를 보고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척도는 유사한 정도의 내적 합치도를 가지고 있었다. K-SSRS-P와 SSRS-P의 사회기술 척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K-SSRS-P:초등학생용의 각 요인별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들의 내용적 공통점을 살펴보고, 이를 SSRS-P Elementary Level의 요인 구조와 비교하였다. 먼저, K-SSRS-P:초등학생용의 요인 1에 속한 문항들을 살펴보았다. 전체 8개의 문항중 6개의 문항은 SSRS-P Elementary Level의 주장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이었고, 2개는 SSRS의 책임성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었다. SSRS에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구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또래로부터의 압력이나 모욕과 같은 행동에 반응하는 등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주장성으로 정의했다. SSRS의 책임성 요인에 해당하는 2문항 또한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들과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요인 1은 주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에 포함된 6개의 문항은 모두 SSRS-P Elementary Level의 협동성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었다. 요인 2는 협동성이라고 명명했다. 원저자들은 협동성을 ‘남을 돋고, 자료를 교환 또는 공유하며,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협동이란 개념에 관해 우리 문화 속에서 통용되는 정의는 ‘마음과 힘을 서로 합함(국립국어원, 2008)’이지만, 서구문화에서의 협동은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을 포괄한다.

요인 3에 포함된 5개 문항들 중 4개는 SSRS-P Elementary Level의 책임성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들이었고 1개는 주장성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들이었다. SSRS에서는 책임성을 ‘성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및 소유물이나 작업에 관한 존중’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요인 3을 책임성이라고 명명했다.

요인 4에 포함된 6개의 문항들은 5개는 SSRS-P Elementary Level의 자기조절 요인에 포

표 2. K-SSRS-P:초등학생용과 SSRS의 상관관계

척도		상관계수
K-SSRS	SSRS	.98***
협동성	cooperation	.93***
주장성	assertion	.89***
책임성	responsibility	.78***
자기조절	self-control	.88***

*** $p<.001$

함되는 문항들이었고 1개는 SSRS-P Elementary Level의 협동성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이었다. SSRS에서는 자기조절을 ‘짓궂은 놀림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과 같은 갈등 상황에 나타나는 행동과, 교대를 하고 타협을 하는 것과 같은 비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라고 정의했다. SSRS-P Elementary Level의 협동성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 또한 자기조절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요인 4는 자기조절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문제 행동 영역에 관해서는, 요인의 수효에 대한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요인의 수효를 제한하지 않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니, Kaiser (1960) 방식과 평행분석에 의해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SSRS-P Elementary Level의 문제 행동 척도 또한 3개의 요인을 가정하고 있었지만, 스크리검사에서는 4개의 요인이 적절해 보였으므로, 요인의 수효를 3개와 4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사회기술 영역에 대해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자, 요인의 수효를 3개로 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결과가 얻어졌다. 사회기술 영역에 대해서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문항 17개를 이용하여 문제 행동 영역의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표 3에는 850명의 학부모 자료를 통해서 얻은, 17문항으로 된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척도에 대한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내적 합치도 계수 그리고 사각으로 회전된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영역 요인들에 대한 형태계수와 구조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7이었고,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65~.86의 범위에 있었다. SSRS-P Elementary Level의 경우,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7이었고, 하위 척도들

의 내적 합치도는 .71~.87의 범위에 있었다. K-SSRS 문제행동 척도와 SSRS 문제행동 척도와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척도에 대한 각 요인별 의미를 확인하고 명칭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항들의 내용적 공통점을 살펴보고 SSRS-P Elementary Level의 요인구조와 비교하였다.

요인 1은 SSRS-P의 과잉 행동 요인에 속하는 문항 5개와 SSRS-P의 외현화 문제 요인에 속하는 문항 3개 그리고 SSRS-P의 내재화 문제 요인에 속하는 문항 1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요인 1에 포함되어 있는 SSRS-P의 외현화 문제 문항들은 분노 조절에서의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었다. SSRS-P에서는 분노 조절에서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항들이 외현화 문제 요인에 포함되어 있지만, K-SSRS-P:초등학생용의 요인 3이나 CBCL의 외현화 문제 척도 모두는 분노 조절 개념을 포함하지 않은 채 공격 혹은 공격과 비행을 중심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분노 조절의 개념은 공격 혹은 비행 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보다는 충동적 반응의 개념을 포함한 과잉 행동에 개념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K-SSRS-P:초등학생용에 나타난 요인 1과 요인 3의 구분은 SSRS-P Elementary Level의 요인 구분에 비해 오히려 개념적으로 더욱 적절하고 명료하다고 볼 수 있다. 요인 1은 주로 과도한 운동성,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충동적 반응과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과잉 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우울, 고독감, 낯은 자존감, 불안과 관련된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4개의 문항 모두 SSRS-P의 내재화 문제 요인에 속했으므로, 요인 2는 내재화 문제라고 명명하였다.

표 3. 사각으로 회전된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영역에 대한 요인 형태(구조) 계수, 신뢰도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전체척도 $\alpha=.87$	SSRS 요인 ^주	형태(구조) 계수			<i>M</i>	<i>SD</i>			
		1	2	3					
요인 1									
$\alpha=.86$									
53	I, H	.82(.74)	-.02(.34)	-.14(.31)	.55	.61			
51	H	.69(.67)	-.06(.28)	.02(.38)	.44	.54			
48	H	.62(.64)	-.12(.23)	.14(.45)	.31	.51			
50	H	.57(.67)	.04(.36)	.15(.48)	.36	.53			
54	E	.56(.69)	.12(.43)	.14(.48)	.61	.63			
55	E	.50(.65)	.14(.43)	.16(.48)	.63	.63			
52	I	.45(.52)	.28(.46)	-.13(.20)	.45	.53			
49	E	.44(.56)	.05(.32)	.18(.43)	.57	.56			
47	H	.44(.55)	.13(.37)	.10(.38)	.25	.49			
요인 2									
$\alpha=.65$									
40	I	-.12(.27)	.74(.70)	.07(.22)	.50	.54			
41	I	.02(.33)	.71(.70)	-.06(.16)	.29	.49			
42	I	.20(.39)	.40(.50)	.00(.23)	.31	.51			
45	I	.03(.22)	.32(.36)	.06(.17)	.09	.32			
요인 3									
$\alpha=.66$									
39	E	-.06(.34)	.00(.19)	.72(.69)	.40	.52			
43	E	.09(.39)	.06(.25)	.51(.57)	.17	.40			
46	E	.15(.44)	.11(.31)	.43(.56)	.50	.53			
44	H	.24(.43)	-.01(.21)	.34(.47)	.13	.36			

주. 원 척도에 속한 3개 요인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H: Hyperactivity, I: Internalizing, E: Externalizing

요인 3은 SSRS-P의 외현화 문제 요인에 속하는 3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SSRS-P의 과잉 행동 요인에 속하는 문항 1개가 더해져서 구

성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요

표 4. K-SSRS-P:초등학생용과 SSRS의 상관관계

척도		상관계수
K-SSRS	SSRS	1.00 ***
과잉행동	hyperactivity	.92 ***
내재화문제	internalizing	.89 ***
외현화문제	externalizing	.82 ***

*** $P < .001$

인 3은 외현화 문제라고 명명하였다.

K-SSRS-P:초등학생용의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K-SSRS-P:초등학생용의 하위 척도들 모두를 이용하여 892명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기술 영역에 속하는 하위 요인들 간에 그리고 문제행동 영역에 속하는 하위 요인들 간에는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존재했다. 사회기술 영역에 속하는 하위 요인들과 문제행동 영역에 속하는 하위 요인들은 서로에 대해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맺고 있었는데, 사회기술 영역에 속하는 주장성 요인과 문제행동 영역에 속하는 외현화 문제 요인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존재하였다. K-SSRS-P:초등학생용의 하위 척도들 간의 관계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문제 행동 영역의 요인 각각과 사회기술 영역 각각의 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동일 영역내의 요인들끼리는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기술 영역의 각 요인들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 행동 영역의 각 영역들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한 세 차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주장성 요인은 과잉 행동 및 외현화 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내면화 문제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협동성 요인은 과잉 행동에 대해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형성하고 있었고, 책임성 요인은 과잉행동과 외현화 문제 요인에 대해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형

표 5. K-SSRS-P:초등학생용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K-SSRS-P, 사회기술척도(SSRS)				K-SSRS-P, 문제행동척도(SSRS)					
주장성	협동성	책임성	자기조절	총점	과잉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점	
주장성	1	.30 ** (.33)	.32 ** (.51)	.38 ** (.38)	.73 ** (.71)	-.09 ** (-.21)	-.16 *** (-.40)	.11 ** (-.15 *)	-.08 * (-.30) *
협동성		1	.45 ** (.41)	.52 ** (.50)	.76 ** (.75)	-.35 ** (-.35)	-.08 * (-.24)	-.12 * (-.34)	.29 ** (-.37)
책임성			1	.51 ** (.38)	.70 ** (.78)	-.31 ** (-.27)	-.12 ** (-.20)	-.16 ** (-.20)	.28 ** (-.27)
자기조절				1	.79 ** (.79)	-.42 ** (-.47)	-.19 ** (-.34)	-.19 ** (-.57)	-.38 ** (-.55)
총점					1	-.38 ** (-.44)	-.20 ** (-.39)	-.10 ** (-.42)	-.34 ** (-.50)
과잉행동						1	.46 ** (.57)	.57 ** (.63)	.95 ** (.88)
내재화문제							1	.30 ** (.43)	.66 ** (.80)
외현화문제								1	.72 ** (.81)
총점									1

* $P < .05$, ** $P < .01$, *** $P < .001$

표 6.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요인들과 문제 행동 요인들과의 관계

과잉행동			내면화			외현화			
$R^2=.23$			$R^2=.05$			$R^2=.08$			
	B(SE)	β	t	B(SE)	β	t	B(SE)	β	t
주장성	.14(.04)	.13	3.65***	-.04(.02)	-.09	-2.38*	.10(.02)	.23	6.08***
협동성	-.25(.05)	-.18	-4.85***	.02(.02)	.04	.96	-.02(.02)	-.04	-.88
책임성	-.19(.07)	-.10	-2.55*	-.02(.03)	-.03	-.71	-.09(.03)	-.12	-2.94**
자기통제	-.53(.06)	-.34	-8.38***	-.11(.03)	-.18	-4.00***	-.11(.03)	-.19	-4.46***

* $P<.05$, ** $P<.01$, *** $P<.001$

성하고 있었다. 자기통제 요인은 과잉행동과 내면화 문제 그리고 외현화 문제 모두에 대해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 행동 영역에 대한 사회기술 영역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성차

전체 척도 평균 점수의 성차를 비교하였다. 먼저, 사회기술 총점을 비교하였을 때 여학생에 대한 평정이 남학생에 대한 평정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표 7). 구체적으로는, 협

표 7. 성별에 따른 K-SSRS-P:초등학생용의 평균 비교

K-SSRS	여학생		t
	M(SD)	N=617	
주장성	1.20(.38)	1.20(.38)	-.03
공감	1.08(.43)	.95(.43)	3.86***
협동	1.57(.34)	1.49(.36)	2.85**
자기통제	1.08(.35)	1.02(.38)	2.16*
사회기술전체	1.22(.28)	1.15(.29)	2.73**
$N=644$			
과잉행동	.42(.37)	.51(.40)	-2.85**
내면화문제	.32(.35)	.27(.30)	1.93
외현화문제	.23(.29)	.36(.32)	-5.55***
문제행동전체	.35(.29)	.42(.30)	-2.83**

* $P<.05$ ** $P<.01$ *** $P<.001$

동성, 책임성, 자기통제 척도에서 여학생에 대한 평정이 남학생에 대한 평정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하위척도중에서는 공감척도와 자기통제 척도, 협동 척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잘했다.

문제행동에 관해서는 남학생에 대한 문제행동 평균이 여학생에 대한 문제행동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하위척도별로는, 남학생이 과잉행동, 외현화문제에서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평정을 받았다.

K-SSRS-P:초등학생용의 공존 타당도

K-SSRS-P:초등학생용의 공존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K-CBCL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SSRS-P는 공존 타당도와 관련하여, SSRS-P: Elementary Level의 문제행동 영역 전체와 CBCL의 문제행동 척도 총점이 .70의 상관을 갖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 행동 영역 전체는 K-CBCL의

총 문제행동 척도와 .63($p<.001$)의 상관을 갖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K-SSRS-P:초등학생용의 과잉행동 요인과 K-CBCL의 주의력 문제 요인은 .64($p<.001$), K-SSRS-P:초등학생용의 내면화 문제 요인과 K-CBCL의 내재화 문제 척도는 .40($p<.001$) 그리고 K-SSRS-P:초등학생용의 외현화 문제 요인과 K-CBCL의 외현화 문제 척도는 .47($p<.001$)의 유의미한 상관을 갖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K-CBCL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그리고 문제 행동 전체는,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영역에 속하는 하위 요인들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갖고 있었으며,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영역에 속하는 하위 요인들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K-SSRS-P:초등학생용의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들과 K-CBCL의 내재화 문제 척도 및 외현화 문제 척도 그리고 총 문제행동 척도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K-SSRS-P:초등학생용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들과 K-CBCL과의 상관($N=373$)

K-SSRS-P	K-CBCL			
	주의집중문제	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	전체
주장성	-.13*	-.27***	-.07	-.25***
협동성	-.32***	-.29**	-.25***	-.32***
책임성	-.28***	-.18*	-.21	-.21
자기조절	-.41***	-.31**	-.41***	-.37***
사회기술전체	-.37***	-.38***	-.30***	-.39***
과잉행동	.64***	.48***	.70***	.63***
내면화문제	.37***	.40***	.34***	.45***
외현화문제	.29***	.15	.47***	.30***
문제행동전체	.61***	.48***	.68***	.63***

* $p<.05$, ** $p<.01$, *** $p<.001$

연구 2. K-SSRS-P:
초등학생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방 법

대상 및 도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요인 및 문항들이 또 다른 표본을 사용한 교차타당화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지 검토해보았다. 전국 10개 지역 소재의 초등학생에 재학 중인 아동들의 보호자 2890명에게 K-SSRS-P:초등학생용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학생들은 남학생 1488명, 여학생 141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9.62세(SD=1.06)이었다.

분석

K-SSRS-P:초등학생용의 요인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21.0의 최대우도 추정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1에서 성차가 발견되었으므로, 첫 번째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는 성별에 따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사회기술 척도와 문제행동 척도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 두 차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에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문항들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에는 원래의 SSRS-P:초등학생용의 요인구조를 그대로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K-SSRS-P의 요인구조가 남녀 두 집단에서 동

일한 방식으로 확인되는지를 측정하였다.

결 과

K-SSRS-P:초등학생용의 요인 구조 모형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개의 적합도 지표를 사용했다. 첫째, 절대적합도 지수로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사용하였고, 둘째, 상대적합도 지수로 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를 사용했다.

먼저, 사회기술척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K-SSRS의 요인구조의 경우 $\chi^2(269)=1830.848$, TLI=.88, CFI=.90, RMSEA=.04로, K-SSRS-P의 요인구조가 자료에 매우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FI의 경우 .9 이상이면 좋은 합치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Kline, 2010). RMSEA는 .05이하이면 합치도가 우수한 것, .05와 .08 사이이면 수용가능한 정도의 합치도를 가지고 있는 것, 합치도가 .10 이상이면 합치도가 나쁨을 의미하는데 (Brown & Cudeck, 1993), K-SSRS의 경우 .05보다 작았다. SSRS의 요인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때보다도 더 나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제행동척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chi^2(116)=1259.513$ TLI=.86, CFI=.90, RMSEA=.06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우수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SSRS의 요인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때보다도 더 나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었다. 분석에 사용된 요인구조 및 분석을 통해 얻은 표준화된 회귀 계수 추정치는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되어있으며,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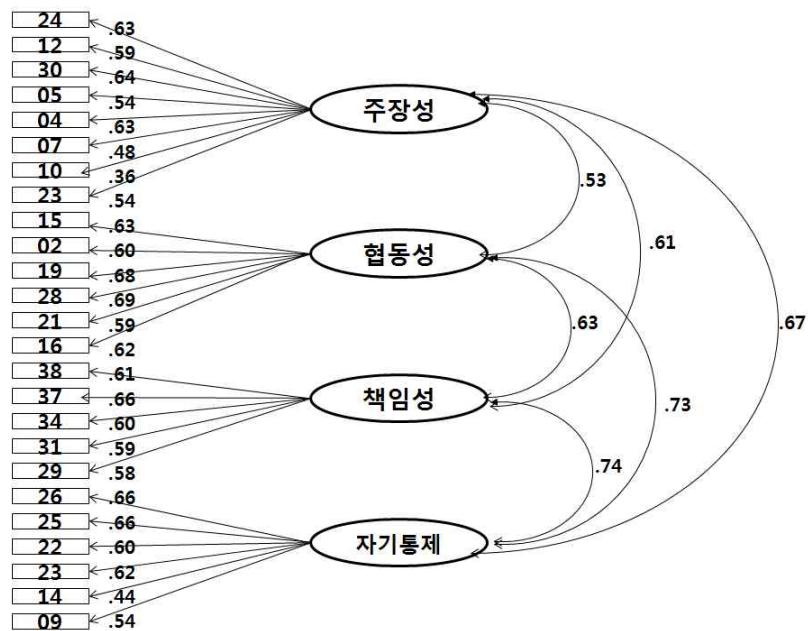


그림 1. K-SSRS-P:초등학생용(사회기술척도)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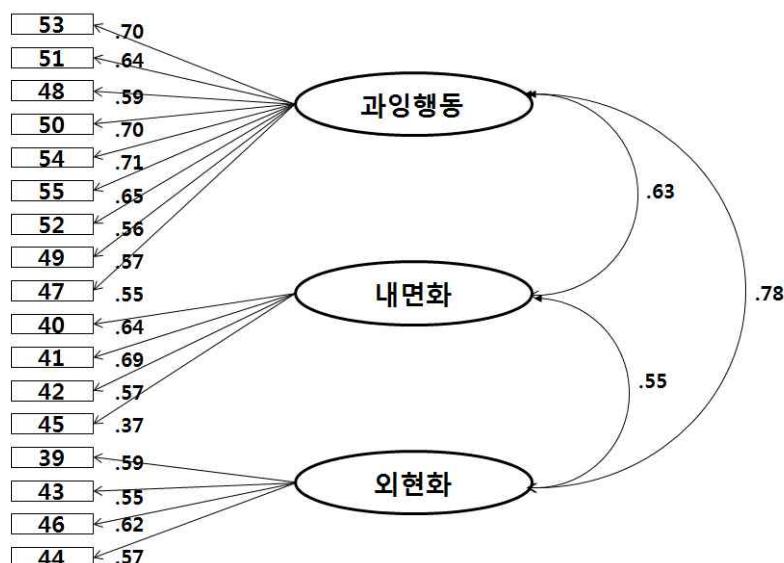


그림 2. K-SSRS-P:초등학생용(문제행동척도)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표 9. K-SSRS-S:초등학생용(사회기술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얻은 적합도 지수들

	χ^2	df	P	TLI	CFI	RMSEA
K-SSRS-P	1729.021	269	.00	.88	.90	.04
SSRS-P	4532.598	659	.00	.80	.83	.05

표 10. K-SSRS-P:초등학생용(문제행동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얻은 적합도 지수들

	χ^2	df	P	TLI	CFI	RMSEA
K-SSRS-P	1197.767	116	.00	.86	.90	.06
SSRS-P	1321.680	116	.00	.85	.88	.06

표 11. 성별에 따른 K-SSRS-P:초등학생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df	P	TLI	CFI	RMSEA
사회기술척도						
여학생	971.781	269	.00	.88	.90	.04
남학생	1058.166	269	.00	.86	.89	.04
문제행동척도						
여학생	702.094	116	.00	.84	.88	.06
남학생	690.871	116	.00	.85	.89	.06

수는 표 9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 걸쳐서 K-SSRS-P:초등학생용의 요인구조가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여학생과 남학생 집단에 대한 분석 모두 동등한 정도의 우수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해냈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Gresham과 Elliot (1990)이 개발한 SSRS-P Elementary Level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에 대해서도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SSRS-P Elementary Level을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구인 타당도와 공존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얻고자 하였다.

구인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2개의 상이한 다른 표본을 이용하여 K-SSRS-P:초등학생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기술 척도에서는 주장성, 협동성, 책임성, 자기조절의 4 요인 구조로 이루어진 총 25문항이, 그리고 문제행동척도에서는 과잉행동,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3 요인 구조로 이루어진 총 17문항이 최적의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해서 얻은 K-SSRS-P:초등학생용과 SSRS-P 원문항 사이에는 매우 높은 정도의 상관이 존재하였고,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 기술 척도 및 문제 행동 척도 모두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SRS(1990)이나 K-SSRS-S:초등학생용(문성원, 2013)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더 나은 사회적 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문제행동과 관련해서는 남학생에 비해 더 낮은 빈도의 행동을 보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얻은 K-SSRS-P:초등학생의 요인구조 모형이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매우 적합할 뿐만 아니라, SSRS-P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아동들의 자료를 더 잘 설명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자료를 매우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CBCL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K-SSRS-P:초등학생용이 매우 우수한 정도의 공존타당도를 갖고 있음을 입증해냈다. K-SSRS-P:초등학생용의 내면화문제는 K-CBCL의 내재화문제와, K-SSRS-P:초등학생용의 외현화 문제는 K-CBCL의 외현화 문제와 매우 높은 정도로 상관되어 있었으며,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척도가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척도 대해서 갖는 관계는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척도가 K-CBCL의 문제행동 척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K-SSRS-P:초등학생용은 매우 우수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척도이며,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사용하기에는 SSRS-P보다 더 적절한 척도이다.

그러나, K-SSRS-P:초등학생용에 대한 타당화 과정은 척도가 가지고 있는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하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들 특유의 심리사회적 발달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K-SSRS-P:초등학생용은 요인구조의 측면에 있어서는 SSRS-P와 유사했지만, 요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매우 뚜렷한 문화적 차 이를 드러냈다. 특히 주장성 요인과 과잉행동 요인 그리고 외현화 문제 요인간의 관계에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협동성 요인과 문제행동들간의 관계는 K-SSRS-S:초등학생용에 대한 타당화(문성원, 2013)에서 얻은 결론을 지지했다. 이들에 대해서 다음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로 주장성 요인의 경우를 보자면, 한국판 타당화 과정을 통해 개념 자체가 더욱 명료해졌다. 가령, “35.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쉽게 바꿔한다”나 “13.다양한 일이나 주제에 관심을 보인다” 등의 문항은 SSRS-P Elementary Level에서는 주장성 요인에 속했지만, K-SSRS-P:초등학생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문항이다. 그러나, 35번 문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동은 사회 기술의 측면에서보다는 오히려 문제 행동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다. 13번 문항의 경우도 문제 행동은 아니지만 배제되는 편이 주장성이라는 요인의 내용 구성 을 보다 매끄럽게 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 기술은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보호기술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K-SSRS-P:초등학생용의 주장성 요인은 과잉행동 및 외현화 문제 요인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SSRS-P에서는 네 개의 사회기술 요인 모두 문제 행동 척도와 부적 상관을 형성하고 있고, K-SSRS-P:초등학

생의 나머지 3요인은 모두 문제행동 척도와 부적상관을 형성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볼 때, 이러한 상관관계는 상당히 예외적인 특징이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주장성 요인과 과잉행동 및 외현화 문제 요인과의 관계는 다른 사회기술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먼저, K-SSRS-P:초등학생용의 주장성 요인과 외현화 문제 요인간의 관계를 보면, 다른 사회기술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고려하든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존재했다. 즉, 둘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고,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문제행동 척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주장성 요인과 외현화 문제 요인의 관계에서 책임성 요인과 자기조절 요인의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이 두 요인간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주장성요인과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는 K-CBCL에서도 동일해서,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K-CBCL의 외현화 문제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역시 다른 사회기술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주장성 요인에서의 높은 점수는 K-CBCL에서의 높은 점수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K-SSRS-P:초등학생용의 주장성 요인과 과잉행동 요인간의 관계는 이와는 달랐다. 다른 사회기술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양자 간의 상관을 검토했을 때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지만,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척도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과잉행동문제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자, 정반대의 관계가 드러났다. 즉, 주장성 요인과

외현화 문제 요인의 관계에서 나머지 세 요인의 부분을 배제하자 주장성 요인과 외현화 문제 요인 간에 정적인 상관 관계가 드러났다.

서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는 중요한 사회기술중 하나인 주장성이 대표적인 친사회적 기술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과 부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높은 정도의 주장성이 높은 정도의 외현화 문제나 높은 정도의 과잉행동과 관련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문성원(2003a, 2003b)이 지적했듯이, 우리문화에서의 주장성은 공감이나 자기조절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단순히 대인민감성이 낮은 것일 수 있고, 오히려 공격성이나 분노와 밀접히 관련될 수 있음을 일관적으로 지지하는 증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에게서 높은 수준의 주장성이 발견된다고 하면, 오히려 부적응적인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높은 정도의 주장성이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와 높은 수준의 과잉행동으로 연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점, 미취학 아동의 경우 관인 어린이집이나 관인 유치원이외의 사교육 기관에서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아동이 많은 점, 정서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은 도와시한 채 인지적 발달만을 편중적으로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원인이 되어, 결국은 주장 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공격적인 행동을 양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이들 변인들을 모두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세 번째로, K-SSRS-P:초등학생용의 과잉행동

요인은 SSRS-P의 외현화 문제 요인에 포함되어있던 분노조절 행동 관련 문항들을 모두 포함하게 됨으로서 보다 넓은 범위의 과잉행동 들을 다루게 되었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경우 분노조절과 관련된 행동들은 외현화 문제의 맥락보다는 과잉행동 문제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는 과잉행동으로 포괄되는 범위의 문제행동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K-SSRS-P:초등학생용의 외현화 문제에서는 SSRS-P나 K-CBCL의 외현화 문제와 비교할 때 가장 직접적인 의미의 공격성을 평가하게 되었다. 즉, K-CBCL의 외현화 문제 척도가 비행과 공격성을 모두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SSRS-P의 외현화 문제 요인은 비행 관련 문항을 가지고 있지 않고, K-SSRS-P:초등학생용의 외현화 문제 요인은 여기서 다시 분노 조절 관련 행동들을 배제시켰다. 결국, K-SSRS-P:초등학생용의 외현화 문제 요인에는 직접적인 대상을 향해 의도적으로 가하는 공격적 행동들만 남았다.

다섯 번째로, 본 논문의 결과를 보면 협동성 요인은 모든 문제행동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협동성이 높게 평정된 아동일수록 과잉행동, 내면화문제, 외현화 문제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모두 배제하면 특히 협동성은 과잉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분명 협동성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집안의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방을 깔끔하게 하고, 부모의 집안일은 돋고, 시간안에 집안일을 마치고, 부모 도움 없이 집안일을 먼저 시도하고, 자진해서 가족들 할 일을 도와주는 일은 우리문화에서는 거의 격려되지 않는 행동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녀의 과잉행동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모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양자 간의 상관 관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문화에서 이들 중 한쪽에 대해서만 편향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K-SSRS-S:초등학생용에 대한 타당화(문성원, 2013)에서와 매우 일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K-SSRS-S:초등학생용의 협동성 문항들은 혼자 힘으로 제때 숙제를 마친다거나 혹은 책상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등의 행동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K-SSRS-P:초등학생용의 협동성 요인에서 다루고 있는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중요하게 교육되거나 격려되고 있는 행동들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계적으로 아동이 협동성 기술을 학습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학교도 학부모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아동들과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학교와 가정에서 협동적 행동을 가르치는 일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사회기술과 관련된 예방적 개입과 관련하여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남겼다. 만일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K-SSRS-P:초등학생용에서 높은 정도의 주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일단 높은 정도의 외현화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K-SSRS-P:초등학생용의 외현화 문제 요인은 SSRS-P의 외현화 문제에 비해 보다 직접인 공격적 행동들, 특히 다른 아동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다른 아동을 위협하는 행동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높은 주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장성으로 보이는 친사회적 기술이외에 구체적인 외현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즉각적으로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장성과 과잉행동간의 상관 관계가 다른 사회기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도 개입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회기술 요인들의 영향을 배제한 채 주장성과 과잉 행동간의 관계만을 확인하면 분명 높은 과잉 행동은 낮은 주장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 수준에 맞춰서 사회 기술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일차적 개입 및 이차적 개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협동성 요인에 관해서는 문제 행동과의 관련성 혹은 그 중요도에 비해 학교나 가정 모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관해 일차적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개입프로그램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해외에서 개발된 심리평가 도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주장성은 대표적인 필수 사회적 기술이고 많은 임상군의 치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기술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는 높은 주장성이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 행동과 관련되어 있었다. 심리평가도구를 국내판으로 타당화 하는 경우는 해당 도구들이 다루고 있는 심리적 구인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양 문화 간 차이를 충분히 비교 검증한 후 국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해외의 다양한 심리평가도구들이 속속 국내로 소개되고 있는 만큼, 도구 개발 국가와 우리나라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일관성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SSRS(1990), K-SSRS-S: 초등학생용(문성원, 2013), 그리고 본 연구의 K-SSRS-P:초등학생용 모두 성차가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성차와 사회기술, 그리고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인 맥락에서 여러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존타당도와 관련된 보다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K-CBCL 문제행동척도와 K-SSRS-P:초등학생용의 문제행동 척도와의 상관만을 검토했으므로, K-SSRS-P:초등학생용의 사회기술 척도와 다른 관련 척도와의 상관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는 K-SSRS-P:초등학생용의 공존타당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아동들의 발달 장애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K-SSRS-P:초등학생용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군에 속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2). 학생 정서행동 발달 선별 검사 및 관리 매뉴얼. <http://www.mest.go.kr/web/285/ko/board/view.do?bbsId=48&mode=view&bboardSeq=28324>
- 국립국어원 (2008).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김용석, 홍지영 (2007). 한국어판 아동용 사회

- 기술 척도의 개발과 평가. *한국아동복지학*, 24, 177-206.
- 문성원 (2002). 한국판 사회적 기술 척도의 타당도 및 유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655-679.
- 문성원 (2003a).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기술 평정 척도 I의 표준화: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유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35-258.
- 문성원 (2003b).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기술 평정 척도 II의 신뢰도, 요인구조, 준거관련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99-119.
- 문성원 (2013). 한국판 초등학생용 사회 기술 평정척도(K-SSRS-S: 초등학생용)에 대한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99-215.
- 박난숙 (1992) “Methylphenidate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아의 인지·행동 및 사회, 학습,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 중앙적성출판사.
- 임효진 (2012). 사회적 행동이 읽기성장에 미치는 영향: 잠재집단 성장모형을 통합 종단연구자료 분석. *교육심리학연구*, 26(1), 199-224.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Edelbrock C., Howell, C. T. (1983). *Manual for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 Edelbrock, C. (1987).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Sage.
- Cattell, R. B. (1966). The scree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 245-276.
- Caughy, M. O., Franzini, L., Windle, M., Dittus, P., Cuccaro, P., Elliott, M. N. & Schuster, M. A. (2012). Social competence in late elementary school: relationships to parenting and neighborhood contex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 1613-1627.
- Demary, M. K., Ruffalo, S. L., Carlson, J., Busse, R. T., Olson, A. E., McManus, S. M., & Leventhal, A. (1995). Social skills assessment: A comparative evaluation of six published rating scales. *School Psychology Review*, 24(4), 648-671.
- George, D., & Mallory, P. (2001).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10.0 update(3rd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Gresham, F. M. & Elliot, S. N. (1990). *Manual for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American Guidance Service.
- Hawkins, J. D., Kosterman, R. K., Catalano, R. F., Hill, K. G., Abbott, R. D. (2005). Promoting positive adult functioning through social development intervention in childhood.

-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9(1), 25-31.
- Horn, J. L. (1965).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0, 179-185.
- Kaiser, (1960).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puters to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 141-151.
- Kiley-brabeck, K., & Sabin, C. (2006). Social Skills and Executive Function Deficits in Children With the 22q11 Deletion Syndrome, 13(4), 258-268.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awson, C. (2003). Social skills and school. Center for Development and Learning. http://www.cdl.org/resource-library/articles/social_skills.php
- Matson, J. L., Rotatory, A. F., & Helsel, W. J. (1983).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to measure social skills in children: The Matson Evaluation of Social Skills with Youngster (MESS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1(4), 335-340.
- Meyer, P. S. & Mueser, K. T. (2011). Resiliency in individual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In S. M. Southwick, B. T. Litz, D. Charney & M. J. Friedman(Eds.),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Challenges Across the Life Span*(pp.281).
- Reynolds, C. R., & Kamphaus, R. W. (2004). BASC-2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Second Edition. Circle Pines, MN: AGS Publishing.
- Kiley-Brabeck, K., & Sabin, C. (2006). Social Skills and Executive Function Deficits in Children With the 22q11 Deletion Syndrome. *Applied Neuropsychology*, 13(4), 258-268.
- Wentzel, K. (1993). Does being good make the grade? Social behavior and academic competence in middle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2), 357-364.

원고접수일 : 2013. 02. 09.

1차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5. 23.

2차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7. 04.

개재결정일 : 2013. 08. 01.

**Assessing Social Skills and Problem Behaviors in Korean children: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Children (K-SSRS-P: Elementary Level)**

Sung-Won Moon

Woos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Skill Rating System - Parent Form(SSRS-P; Gresham & Elliot, 1990)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tudy 1, 892 parents of elementary students were administered with K-SSRS-P for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and 307 of them were administered with K-SSRS-P and K-CBCL to test the instrument's concurrent validity. EFA yielded four interrelated factors of assertion, cooperation, responsibility and self-control in the social skill domain and three interrelated factors of hyperactivity,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in the problem behavior domain in the K-SSRS-P. The K-SSRS show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Girls showed higher social functioning than boys did. Problem behavior scale showed significant and positive associations with K-CBCL. In study 2, 2270 parents of elementary students were administered with K-SSRS-P for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CFA confirmed four factors structure of 25 items on the social skill scale and 3 factor structure of 17 items on the problem behavior scale in the K-SSRS-P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SSRS-P scores explained more variance in the data than the SSRS-P scores did. In conclusion, the K-SSRS is useful for assessing social skills in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has good psychometric properties. The implications of the cultural differences in social skills and the differential relationships of social skills to problem behaviors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skill, reliability, validity, factor analysis, children, prevention